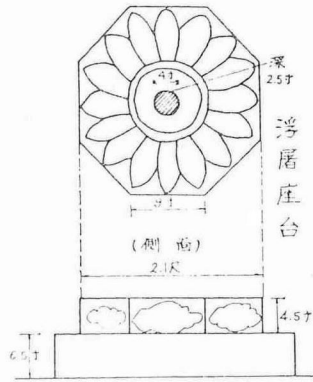


巨師最賢의舍利壇部材

洪 思 俊

五月十五日 瑞山 三尊磨崖佛像前室工事場에서 하루를 消日하는 동안 寺址一帶에 或이나 三尊磨崖佛像이 彫出되던 百濟當時의 遺物이 흩어져 있지 않음까 하여 두루 살피어 보았으나 이렇다는 것이 發見되지 않았다.



岩面이 있는데 一行의 楷書滿字가 아래와 같이 自然岩面에 있다.

「巨師最賢生舍利安壇 法師守滿」

字形은 二寸이며 書體가 李朝時代것으로 推定되었다. 이 金石文과 글러 퍼려진 浮屠臺石과를 佛刹에 法師守漢이 巨師最賢의 舍利를 安置한 浮屠 臺石을 알겠으며 李朝時代까지 寺院이 있던것을 알리고 있다.

慶州出土蓮花鬼面의 新例

張 南 植

近者 慶州博物館에 蓮花鬼面片 二點이 入手되나 있는데 完全한 것이

아니고 缺損이 甚한 一部分片이나 그 形態가 特異함으로 紹介해 두고저 한다.

一、綠釉蓮花鬼面

慶州市 排盤里 出土라고 傳하는바 四天王寺址附近이 아닌가 推測된다. 赤色粗質바탕에 煤黑色 釉藥을 발렸으며 下端에 潤瓣蓮花紋이 正半形으로 陽刻되었고 그 위에 鬼面齒牙部下唇과 蓮珠紋이 있는 右周椽一部分가 殘存하였다. 缺損이 甚하여 全體의 輪廓을 알 수 없으나 半形蓮瓣의 中心에서 下端이 平面向으로 끝났으며 下唇部와 蓮瓣의 側面空間은 飛雲文으로 充填하였고 下唇部 周邊에는 渦狀形으로 끝이 말린 수염(髯)이 平行線을 이루고 外周椽側面에는 忍冬唐草紋이 流暢한 솜씨로 彫刻되었다 總高一五cm 幅一九cm 厚五cm 蓮瓣徑一一cm

二、蓮花鬼面片

月城郡望德寺址 出土라 傳하며 灰白色의 堅質土製로서 上下 兩側面을 共히 缺하여 輪廓을 짐작하기 어려우나 前記 排盤里出土의 것과 거의 手法이 恰似함이 注目된다. 高一六cm 幅一五cm 厚四cm 로서 鬼面下唇部 밑에 短彩潤瓣重葉蓮花가 亦是 半形으로 또렷하고 古側上部一隅에 귀의 一部가 남아있으며 口邊齒牙가 比較的 高彫이다 口邊周圍의 끝이 말린 수염 等은 新羅末期의 鬼面一般形에 屬한 것이라 하겠다.

前記一例는 忠南扶餘郡窺岩面 出土蓮座鬼形文壇(國博扶餘分館收藏)에서 鬼面의 裸形體軀만을 除外하고 面部 밑에 蓮花를 半形으로 넣어서 下端끝을 맺은 것과 恰似한 것으로 興味있는 資料라 生覺된다.

考古美術 卍一 스

◎ 文化財委第一分委(第九次)

六月十八日 午後三時 文化財管理局會議室에서 開催되었는데 出席은 金宰基金 斗鍾 李相佰 金允基 金元龍委員外 河局長 文化財課管理係長과 李浩官諸氏 및 金 圭敬教授(石窟庵現況調查委員會委員)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